

##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

### 서남전선지구에 위치한 조선인민군 제4군단 사령부관하 군부대들을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서남전선지구에 위치한 조선인민군 제4군단사령부관하 군부대들을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최전방에 위치한 조선인민군 제403군부대관하 1대대와 4대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 높은 산발들과 험한 령들을 넘으시어 대대들에 도착하시자 군인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와 《김정은 결사옹위!》의 구호를 터쳐올리며 혁명의 최전방에 최고사령부를 두시고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해 주시는 백두의 천출명장을 뜨거운 걱정속에 맞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1대대와 4대대의 군인들이 조선로동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생안결과 자동보충을 기념으로 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4대대의 전투진지들을 시찰하시면서 싸움준비상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최고령도자께서는 백두산혁명강군의 총대맛, 진짜전쟁맛을 보여준 군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공화국영웅을 배출한 구분대군인들이 보고싶어 찾아왔다고 하시며 그들의 군공을 거듭 치하하시였다.

최고령도자께서는 관하중대의 병실과 세목장을 돌아보시면서 군인들의 생활을 세심히 헤아려주시였다.

군인들이 최고사령관이 왔다고 눈물을

흘리며 만세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많았다고, 지휘관들이 군인들을 친자식처럼 생각하고 잘 돌봐주어 그들이 건강하고 광만에 넘쳐 군무생활을 해야 자신께서도 시찰의 길을 걷는 보람이 있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구분대의 전투진지들을 지형지물과 싸움준비의 견지에서 보아주시어 최고령도자께서는 구분대의 현 배치상태가 전술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대담하게 새로운 위치에 이동전개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1대대관하 중대의 병실, 교양실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군인들의 생활을 따듯이 보살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최전방에 위치한 조선인민군 제688군부대의 전방지휘소를 시찰하시였다.

전방지휘소에 오르신 최고령도자께서는 남조선괴뢰군 연평도서방어부대의 증강배비된 역량과 기재들의 배치상태를 료해하시였다.

최고령도자께서는 최전방일대의 광활한 방어전연들과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적들의 새로운 침략전쟁준비로 하여 전쟁의 검은구름이 밀려오는 남녘땅을 바라보시면서 지형지물과 군부대의 역량배치상태, 경계군무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군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조선로동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정을 안고 방어지대들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시

켰으며 적들의 그 어떤 불의의 침공도 제때에 격파분쇄할수 있게 튼튼히 준비된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우리 당에 무한히 충직한 병사들이 서리발비긴 멸적의 총검을 억세게 틀어잡고 최전연을 튼튼히 지키고있기에 우리 혁명위업과 사회주의조국은 필승불패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최고령도자께서는 적들의 도발책동에 대처하여 부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방어전역을 철용성같이 다지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바람세찬 산중턱에서 쥘기밥으로 점심식사를 하시고 최전방에 위치한 조선인민군 제493군부대관하 대대를 찾아 시찰의 길을 이어가시였다.

최고령도자께서는 군부대관하 해안포대대감시소에 오르시어 지적에 있는 백령도를 바라보시면서 경계군무실태를 료해하시였다.

군부대의 화력타격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으신 최고령도자께서는 육안으로 뚜렷이 보이는 백령도에 도사리고있는 남조선괴뢰군 6해병여단의 배치상태를 료해하시시고 적들이 기도하고있는 도발책동에 대처하여 부대가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데 대하여 치하하시였다.

최근 적정에서의 변화는 없는가, 전투기술기재와 역량배치는 어떻게 하였는가에 대해 물어주시고 앞으로 화력밀도를 더욱 높일데 대하여서와 현대전의

요구와 변화되는 적의 배치상태에 맞게 화력임무분담과 기재리용에 대한 방안을 끊임없이 수정보충할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이어 대대관하 2중대 1포 군인들의 화력복무훈련을 지도하시였다.

멸적의 포란을 장란하고 명령을 기다리는 군인들의 미더운 모습을 만족하게 바라보신 최고령도자께서는 전시에는 싸움을 잘하는 군인이 영웅이고 애국자이지만 평시에는 훈련을 잘하는 군인이 영웅이고 애국자라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훈련을 드세게 강도높이 진행하여 모두가 뿔뿔 나는 싸움군들로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훈련을 진행한 군인들이 적들과의 치열한 대결전에서 영웅한 조선인민군 포병의 본때를 보여준 전투참가자들이라는 보고를 받으신 최고령도자께서는 장하다고, 적들의 거동을 순간도 놓치지 말고 예리하게 주시하고있다가 싸움이 일어나면 다시금 멸적의 명종포성을 울리라고 하시며 그들을 고무격려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최전방에 위치한 조선인민군 제641군부대관하 대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대대의 군인들이 조국보위성전에서 자랑찬 위훈을 떨쳐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생안결과 자동보충, 기관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최고령도자께서는 교양실, 침실, 식당 등 문화교양 및 후방시설들을 돌아보시면서 군인들의 사업과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지휘관들이 후방사업은 곧 정치사업이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아버지장군님의 말씀을 언제나 명심하고 병사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이 악하게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구분대가 장비한 전투기술기재들을 보아주시어 최고령도자께서는 군인들이 적들의 책동에 대처하여 자나깨나 발사직전의 총탄과도 같은 최대의 격동상태를 견지하고있는데 대하여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서남전선 지구에 위치한 군부대들의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조선로동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목숨바쳐 사수하며 혁명적대고조를 강력한 군력으로 굳건히 담보하기 위해 모든 작전지역들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시키는데 대하여 다시금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최고령도자께서는 적들의 무모한 침략도발광란에 의해 서남전선지구는 당장이라도 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열점지대라고 하시면서 일촉즉발의 첨예한 정세가 조성된 조건에 맞게 최대의 격동상태를 유지하고있다가 적들이 우리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조국의 바다에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원수의 머리우에 강력한 보복타격을 안기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본사기자

## 우리의 최고존엄을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린자들은 이 땅, 이 하늘아래 살아숨쉴 곳이 없게 될것이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성명

우리의 가슴아픈 애도기간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감행되는 리명박역적패당과 날강도 미제의 화약내풍기는 전쟁연습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분노와 보복일념은 하늘끝에 닿고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리명박역적패당은 또다시 천추에 용납 못할 대역죄를 꺼리낌없이 저지르고있다. 그것이 바로 다치면 터질듯 한 전쟁전야의 정세를 조성해놓고 그것도 모자라 괴뢰군부대들에서 벌리고있는 우리 최고존엄에 대한 로골적인 중상모독행위이다.

최근 인천시에 주둔하고있는 괴뢰군부대의 내부반서만도 벽체와 문짝들에 감히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초상화를 제멋대로 걸어놓고 그 아래우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글까지 써붙이는 천하무도한 망랑짓을 벌려놓고있다.

우리의 최고존엄에 대한 무분별한 이 모든 중상모독행위는 오직 리명박역적패당만이 벌일수 있는 반민족적인 히스테리적광기이며 나라의 정세를 더는 수습할수 없는 막다른 지경으로 몰아가는 무지한 쟁쟁집단의 새로운 특대형도발행위이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최고존엄에 대한 역적패당의 중상모독행위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다. 괴뢰특해공군부대들에서 잇달아 발생한 《인공기표적》 사건, 괴뢰군병영과 초소들, 군사시설물들에 써붙이거나 내다건 우리의 최고존엄을 헐뜯는 《구호 또는 현수막》 사건, 사격장들과 훈련장에서 벌어진 《최고존엄표적사격》행위가 바로 그것을 말해준다.

우리 민족의 대국상안에 저지른 만고대역죄는 우리 최고존엄을 가장 엄중히 모독한 악행중의 악행이다. 사태의 심각성은 이러한 특대형도발행위를 리명박역도가 직접 고안해내고 괴뢰국방부 장관 김판진과 괴뢰합동참모본부 의장 정승조를 비롯한 군부호전광들이 그것을 《국정파제》로 내세우고 앞장서 벌리고있다는데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강행으로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전쟁구름이 밀려들고있는 때에 역적패당이 저지른 극악무도한 반민족적, 반공화국대결망동을 이 땅, 이 하늘아래에서 더이상 그대로 둘수 없는 극단의 도발로 비상사건화하지 않을수 없다.

역적패당의 특대형도발사건에 대한 소식에 접한 백두산혁명강군의 투핵공군장병들은 《명박이를 쳐죽이라.》, 《군부호전광들을 때려잡자.》는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명령만 내려주시기를 고대하고있다.

남조선사회에서도 벌어진 사태를 두고 《모두의 가슴을 섬쩍하게 만드는 분별없는 행위》, 《원색적인 동족대결음모》, 《전쟁을 회기시키는 정신병자들의 처사》로 규탄하고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천만군민의 치수는 분노와 복수심, 남조선 각계의 민심을 반영하여 이미 내외에 천명한대로 역적패당을 이 땅에서 매장해버리기 위한 우리 식 선전을 무차별적으로 벌리게 될것이라는것을 다시금 온 세상에 엄숙히 선포한다.

한 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수가 바로 리명박역적패당이며 오직 총대로 쓸어버려야 할 반역의 무리가 다름아닌 괴뢰군부호전광들이다.

물리적타격을 기본으로 한 우리 식 선전은 역적패당이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한 모든 행위를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고 리명박역도와 군부호전광들을 비롯한 주모자들을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하고 지은 대역죄를 민족앞에 사죄할 때까지 중단없이 벌리게 될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의 최고존엄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민족공동의 존엄과 명예로 간주하고있으며 그가 누구든 털끝만큼이라도 그것을 모독중상하거나 훼손하려고 달려든다면 가차없이 짓밟개버릴것이다.

지난 북남관계사가 아무리 복잡다단했어도 리명박역적패당에 의하여 지금처럼 극도의 대결상태가 조성되고 전쟁위험이 도래한적은 일찌기 없었다.

날을 따라 확대강화되고있는 역적패당의 동족대결책동은 죽어 너부러질 때가 다가올수록 더 악착스럽게 덤벼드는 미친개의 본성 그대로이다.

천만군민의 심장속에서 용암처럼 이글거리는 보복일념으로 만장약된 우리의 총대는 역적패당이 다시는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하고 우리의 존엄높은 체제를 헐뜯지 못하도록 마지막 한놈까지 강그리 소탕해버리게 될것이다.

세상은 자기 수령, 자기 제도를 결사옹위하기 위해 떨쳐나선 우리 천만군민의 무자비한 성전앞에 특대형도발자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해지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우리의 최고존엄을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린자들은 이 땅, 이 하늘아래 살아숨쉴 곳이 없다.

주제 101(2012)년 3월 2일  
평 양



# 분노의 도화선에 끝끝내 불을 단 역적패당

## 민족의 최고존엄을 모독한 씻을수 없는 대범죄

남조선에서 리명박역적패당의 대결책동이 도수를 넘어 극도에 이르렀다.

최근 리명박역적패당은 군부호전광들을 내몰아 동족을 겨냥한 침략적인 전쟁연습을 벌여놓다 못해 감히 우리 민족의 최고존엄을 건드리는 용납 못할 특대형도발행위를 또 다시 감행하였다.

보도된바와 같이 최근 인천시에 주둔하고있는 남조선군부대의 내무반에서는 벽체를 비롯한 여러곳에 감히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초상화를 제멋대로 걸어놓고 모독하는 천하무던한 망당짓을 벌여놓았다.

지난해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건드리는 《표적》도발을 감행한데 이어 대국상을 당한 동족의 가슴에 칼질을 하여 우리 민족은 물론 전 세계의 커다란 저주와 규탄을 받은 역적패당이 이번에 또 다시 감행한 천하무던한 대결광신자들의 반민족적인 히스테리적광기이며 정세를 최악의 극단으로 몰아가는 무지

한 광개토태왕의 새로운 특대형도발행위이다.

력대로 남조선에서 동족을 반대하는 정치군사적도발행위들이 끊이지 않았지만 리명박역적패당처럼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건드린자들은 일찌기 없었다. 리명박역적이 집권한 후 감행된 《인공기표적》 사건, 남조선군병영과 초소들, 군사시설물들에 세워지거나 내다건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헐뜯는 《구호 또는 현수막》 사건, 사격장들과 훈련장에서 벌어진 《최고존엄표적사격》행위가 바로 그 대표적실례들이다.

이러한 극단한 도발행위의 앞장서는 극악한 대결광신자 리명박과 그 수하들인 김관진, 정승조를 비롯한 군부광대들이 서었다.

식민지 노복이 되어 외세의 발바닥이나 깔으면서 구차한 명졸이나 부지해나가는 리명박이나 김관진과 같은 역적무리들이 우리 인민을 자주적인 인민으로 세계에 당당히 내세워준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감히

모독한 범죄는 천추만대를 두고 용납될수 없는 죄악중의 죄악이다.

지금 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최대로 긴장하다. 다치면 티끌만한 정세속에서 사소한 도발행위도 전쟁의 불씨가 되어 전면전쟁으로 치달을수 있다.

바로 이러한 때 리명박역적패당이 군사불한당들을 내몰아 우리 민족이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최고존엄을 건드리며 대결광기를 부린것은 공화국에 대한 공공연한 선전포고이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사회에서는 이번의 사태를 두고 《최악의 상황》을 몰아온 분별없는 행위, 《전쟁을 회귀시키는 정신병자들의 처사》로 단죄규탄하며 무분별한 대결소동을 당장 걷어치울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숨을 몰아쉬면서도 동족을 물어뜯기 위해 최후발악을 하는 리명박역적패당에게는 이제 그 어떤 선의와 아량도 필요없으며 더이상

지켜볼것도 없다.

미친개는 동물이로 무자비하게 때려잡아야 하는것처럼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모독한 히스테리적인 대결광신자들은 자비를 모르는 백두산 총대로 다스려야 한다.

민족의 최고존엄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이를 털끝만치라도 건드리는자는 그가 누구이건 어디에 있건 끝까지 징벌하고야마는 것이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의 의지이며 기질이다.

하늘에 새겨진 역적패당의 대죄악에 대한 소식에 접한 공화국의 군민은 멸적의 총대를 틀어쥐고 대결광신자들의 송두를 단숨에 끊어버리기 위한 최후결전의 시각을 기다리고있다.

지금까지 참고참아온 공화국의 의지를 한강 《나약성》으로 오만하며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날뛰는 리명박역적패당은 공화국의 무자비한 성전앞에 전멸할것이다.

주광일

## 주범은 누구인가

최근 인천시에 주둔한 남조선군부대에서 벌어진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모독한 특대형도발행위는 결코 몇몇 호전분자들의 우발적인 망동이 아니다.

주범은 리명박과 그의 총실한 노복인 김관진을 비롯한 군부호전분자들이다. 오늘 조선반도에는 남조선호전세력이 외세와 야합하여 벌리는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으로 하여 다치면 티끌듯이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동족의 가슴아픈 애도기간에 북침전쟁연습을 벌려놓아 조선반도 정세를 최악의 지경으로 몰아간것만도 용납할수 없는 데 불은 불에 기름을 붓는 꼴을 연출하고 있다.

최근 남조선사회에서도 벌어진 사태를 두고 《모두의 가슴을 섬적하게 만드는 분별없는 행위》, 《원색적 인종대결유모》, 《전쟁을 회귀시키는 정신병자들의 처사》로 강력히 규탄하고있다.

극악한 동족대결과 전쟁책동만을 일삼고있는 리명박보수집권세력이 살아숨쉬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

우리 겨레는 그동안 쌓이고 쌓인 민족분열의 한을 총폭발하여 리명박역적과 그 하수인들을 이 땅, 이 하늘 아래에서 영영 매장해버리고야말것이다.

김성남

## 반공화국대결책동의 극치

민족의 대국상기간을 노리고 북침전쟁연습들을 의도적으로 감행하고있는 리명박보수 《정권》에 대한 온 겨레의 분노와 저주는 지금 하늘끝에 닿고있다.

이러한 때에 남조선보수당국이 또 다시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로골적으로 모독하는 대역죄를 저지르지 않았던지 저지른것은 천추만대를 두고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

이것은 오직 리명박역적패당만이 벌일수 있는 반민족적인 히스테리적광기이며 북남관계를 더는 수습할수 없는 막대한 지경으로 몰아가는 무지한 광개토태왕의 새로운 특대형도발행위이다.

돌이켜보면 공화국의

최고존엄에 대한 리명박인민의 중상모독행위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엄중한 단계에서 진행되어왔다.

이미 폭도된바와 같이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은 특대형도발행위를 조작한데 이어 군사분계선과 그 주변일대에 있는 남조선군병영과 초소들, 군사시설물들에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헐뜯는 《구호》와 《현수막》들을 세워지거나 내다지는 반공화국도발행위들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남조선군부대들의 사격장들과 훈련장들에서 벌

린 《최고존엄표적사건》이란것도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심히 모독하는 가장 엄중한 악행중의 악행이다.

민족의 대국상을 당한 동족의 아픈 가슴에 칼을 박는 씻을수 없는 대죄를 짓고도 모자라 이번에 또 다시 감히 상상조차 할수 없는 특대형도발행위를 감행한 리명박역적무리야말로 도덕적으로 저렬하고 무지한 최후의 패륜아집단이다 아닐수 없다.

이번 사태의 심각성은 특대형도발행위를 직접 고안해낸자가 다름아닌 리명박역적

주래를 적라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금 남조선사회에서도 벌어진 사태를 두고 《모두의 가슴을 섬적하게 만드는 분별없는 행위》, 《원색적 인종대결유모》, 《전쟁을 회귀시키는 정신병자들의 처사》로 강력히 규탄하고있다.

극악한 동족대결과 전쟁책동만을 일삼고있는 리명박보수집권세력이 살아숨쉬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

우리 겨레는 그동안 쌓이고 쌓인 민족분열의 한을 총폭발하여 리명박역적과 그 하수인들을 이 땅, 이 하늘 아래에서 영영 매장해버리고야말것이다.

김성남

## 백두산이 령을 내렸다

리 송 일

령을 내렸다  
백두의 자손들이  
백두산이 령을 내렸다  
정의 총창을 비껴들라  
역적패당을 청산할 때가 왔다  
결산의 포문을 열라

조선민족은커녕  
인간병단에도 없는 스페기를  
감히 리명박파들이  
반만년민족의 존엄 되찾고  
빛내어주신  
백두산이 령을 중상모독하다  
어찌 그냥 두랴

백두산이 령을 내렸다  
하늘이여 번개를 터쳐  
역적패당 대갈등에 불소나기  
피부으랴

땅이여 용암을 뿜어  
천와대를 송두리채 제더미로  
만들라

송장만도 못한 이런 놈들  
때문에  
민족의 운명이 유린당한다  
인류도 모르는 이런 패륜아  
들때문에  
백두의 자손들이 치욕당  
한다

백두산이 노호한다  
한시인들 용서하라  
조국과 민족도 모르는 매투  
노들  
리명박역적패당 더 이상  
살려두면  
삼천리의 하늘과 땅에 불구름  
인다

더는 용서 못한다

이 땅, 이 하늘아래서  
역적패당 더는 살아숨쉬  
곳 없다  
백두산이 령을 내렸다  
백두산총대가 격발기를  
당겼다

무자비하게 쓸어버리자  
백두태양 해발아래  
강군의 힘 백배로 다지고  
다진  
백두의 자손들이  
멸적의 방아쇠 당기라

세상에 존엄높은 백두태양  
티끌만큼이라도 중상모독  
한자들  
한놈도 살려두지 말라!  
백두산이 령을 내렸다  
리명박역적패당 깨끗이  
청산하고  
조선민족의 속인을 풀자!

## 멸적의 불길 라오르나

리 철 준

러지는 분노에 가슴이  
운다  
라오르는 증오로 심장이  
란다  
총대를 틀어쥔 병사들  
이 나라 전체 인민들  
불타는 보복일념에 일떠선  
이 땅

아무리 평화를 사랑한대도  
아무리 전쟁을 바라지  
않는대도  
어찌 그냥 둘수 있으랴  
어찌 숨쉬도록 내버려두랴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인  
최고존엄을 건드린자들을  
죽음의 불속에 처넣지 않고  
서는  
피라는 증오로 달아오른  
가슴들 식지 않으리  
저 무지한 리명박광개  
토태왕

보복의 철퇴로 처참지 않고  
서는  
피발선 눈들 밤을 모르리  
란다  
민족의 어머니를 잃은 땅  
태질하는 우리의 가슴에  
악랄하게 칼질을 할 때  
백과 살에 피속에  
복수를 채워온 우리들이다

참을수 없다 이제 더는  
역적패당을 그대로 두고  
서리발총검은 해서 무엇  
하랴  
가슴속에 품고품은 증오의  
폭탄  
활화산처럼 터지지 않고  
천만날을 살아 무엇하랴

분노한 백두산혁명강군이  
천하무도의 특대형도발  
행위들  
한놈도 남김없이 짓밟게  
버릴테

무한케도의 동음을 울린다  
지구상 어디서도 피할수  
없는  
섬멸의 포탄을 쩡쨍 장약  
한다

보라, 우리 군대와 인민을  
보라  
이제껏 겪어온 아픔에  
이제껏 참아온 분노에  
천백배를 더한 복수의  
불을 안고  
이 땅은 그대로 멸적의 불  
로 라오르나니

부나미처럼 날뛰는 리명박  
역적패당  
무자비한 성전의 불길에  
씨도 없이 재가루도 없이  
라버릴 때  
세상은 보게 되리라  
삼군조선의 최고존엄은  
천만심장이 총폭탄되어  
지킨다는것을!

남조선의 호전세력이 민족의 최고존엄을 악랄하게 중상모독한 이번의 참을수 없는 망동은 동족과 전쟁을 하였다는 선전포고와 하등 다름아 없다.

역사에는 사소한 군사적충돌이 전쟁으로 번져진적도 있고 단 한방의 총성으로 세계를 전쟁의 화염에 휩싸이게 한 비극적인 일화도 기록하고있다.

쌍방의 방대한 무력이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첨예하게 대치되어있는 세계적으로도 군사적긴장이 가장 높고 서로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이 쌓일대로 쌓인 조선반도에서 상대방에 대한 자국적인 행동이 자칫 군사적충돌을 불러올수 있고 전쟁으로 타락될수 있다는것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이번에 남조선의 군부호전광대들이 저지른 망동은 도발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이고 엄중한 특대형도발이고 대국상중에 있는 동족의 아

픈 가슴을 칼로 허비다 못해 갈가리 찢어놓는것과 같은 참을수 없는 망동이다. 공화국의 평토에 총포탄을 퍼부은것보다 훨씬 더 엄중하고 복의 사상과 제도, 존엄과 주권, 생명을 송두리채 부정하고 마구 짓밟는것과 같은 천벌을 받을 악행이다.

남조선의 호전세력이 이것을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명천지에 이따위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 망동을 저지른것은 복을 최대로 자국하여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자는것이고 그자체가 동족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한쪽에서는 대규모의 병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화약내나는 연합전쟁연습을 벌여놓고 다른쪽에서는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의 사상감정을 최대

무리들은 반성온커녕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에 대한 비방중상을 일삼으면서 계속 고의적으로 도발을 걸어왔다.

남조선의 특대형군부대들에서 런이 발생한 《인공기표적》 사건, 군병영과 초소들, 군사시설물들에서 발생한 우리의 최고존엄을 헐뜯는 《구호 또는 현수막》 사건, 사격장들과 훈련장들에서 벌어진 《최고존엄표적사격》행위들이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수령사수위령 생의 제일구호로 내세우고있는 우리 800만청년들이 역적패당과 결산할 시각은 왔다.

은 나라 도처에서 피끓는 청년들이 역적패당을 단호히 징벌해버리겠다고 옥목 버리고있다.

우리 청년들은 800만개의 총이 되고 작렬하는 폭탄이 되어 민족앞에 씻을수 없는 만고대역죄를 저지른 불구대천의 원수 리명박역적패당을 이 땅에서 한놈도 남김없이 영영 쓸어버리겠다.

김일성종합대학 청년동맹  
1비서 리응일

## 동족에 대한 선전포고

남조선의 보수패당이 이것을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명천지에 이따위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 망동을 저지른것은 복을 최대로 자국하여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자는것이고 그자체가 동족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한쪽에서는 대규모의 병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화약내나는 연합전쟁연습을 벌여놓고 다른쪽에서는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의 사상감정을 최대

로 건드리는 특대형도발을 일으킨것이 결코 우연의 일치라 볼수 없다. 무지한 남조선광대무리들의 머리속에는 온통 동족에 대한 살기만 증오심과 전쟁광기밖에 없다. 그 달아오른 전쟁열을 가지고 복의 최고존엄을 표적삼아 총질해댄 호전광들이 그 복의 단호한 경고에도 아랑곳없이

이 포사격도발을 일삼아 서해를 전쟁의 바다로 만들었던 남조선역적패당이다.

그들의 안중에는 동족이 없다. 이 땅의 평화와 겨레의 삶, 통일이라는 것도 없다. 동족의 2천수백만의 심장을 겨누고 도발의 포탄을 마구 날린 역적패당의 망동으로 하여 전쟁의 후유증이 아직 가시지지 않은 이 땅에 또 다시 위협천만한 전쟁구름이 짙 끼게 되었다.

남조선의 리명박패당이 또 다시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모독하였다든 경악할 사실에 접한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은 지금 치우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있다.

역적패당이 민족의 대국상을 모독하는 고사하고 남조선인민들의 조문길을 가로막은것으로도 모자라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건드리며 아직 상복도 벗지 못한 동족의 가슴에 또 다시 칼질을 한것은 지옥의 기름가마에 처넣어도 씨런치 않을 대죄악이다.

명색이 그리스도교장로라는 리명박과 그 패당은 《비핵, 개방, 3 000》과 같은 대결정책을 북남관계의 《성서》처럼 내뿜으며 남조선인민들을 기만하고 동족적대감을 고취해왔다.

그 역적무리들에 의하여 6. 15시대에 남조선인민들의 마음속에 존경과 추앙의 모습으로 새겨진 백두산위인들의 영상이 모두되고 거리와 마을들에 휘날리던 공화국기 말이 오늘은 대결 《표적》이

있었는가 하면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전군주요지휘관회의장에 나타나 《주적개념을 확립하라》고 목에 피대를 돌구었다. 그가 얼마나 대결과 전쟁에 환장하였는가 하는것은 2011년 6월 청와대에서 《연평도포격대 북을 타격하지 못했것이 천추의 한이다. 울화통이 터져 정말 힘들었다. 아직도 분을 삭이지 못하겠다. 참을수 없다.》고 너두리를 늘어놓는데서 집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불과 50km거리에 가장 호전적인 집단이 있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위험도 무릅쓸 단단한 각오를 가지라.》 등의 근본적인 전쟁목언이 리명박의 입에서 튀어나왔으며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악랄하게 헐뜯는 황당무계한 소설이랄것을 무어냐며 천하의 인간쓰레기에게 그 무슨 《격려편지》라는것까지 보내며 동족대결을 선동한자도 바로 리명박이다.

꼭뒤에 부은 물이 발뒤꿈치로 흘러내린다고 역도의 이러한 동족대결망동에 힘을 얻은 김관진과 같은 군부호전광들이 지금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덤벼치고있다.

대결미치광이들의 직접적 지시일대 남조선군이 생활하는 모든 공간들에 복을 《적》으로 규정한 구호판들과 선전물들이 설치되고 훈련장의 사격목표와 《절명지》들도 복을 상징하는 표식으로 만들어졌다는것은 이미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또한 남조선군의 그 무슨 《정신교육》에서 복은 《가장 핵심적인 적》으로 규정

되고 일상적인 훈련과 경제근무에 들어가기에 앞서 장교들이 사병들에게 《대적개념》을 심어주며 사병들은 《우리의 적은 복이다.》라는 문구가 들어간 선서와 결의문을 의무적으로 외워대는 것이 제도화되었다.

것이 지난 기간 《인공기표적》 사건, 남조선군병영과 초소들, 군사시설물들에 세워지거나 내다건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헐뜯는 《구호 또는 현수막》 사건, 사격장들과 훈련장들에서 벌어진 《최고존엄표적사격》과 같은 특대형도발행위가 감행되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김관진을 비롯한 군부우두머리들은 감히 공화국의 지도부까지 걸고들며 《주적》이니 뭐니 하는 험담을 늘어놓았는데 하면 그 누구의 《도발》을 운운하며 《교전수칙》을 고치고 《항공기를 동원하여 폭격》 하겠다는 전쟁목언도 서슴지 않았다.

최근에도 김관진은 전면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복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느니 뭐니 하는 악담을 하다 못해 감히 공화국의 존엄과 체제를 모독하는 망발도 꺼리낌없이 했다.

지난해 12월 청천벽력같은 민족의 대국상일에 천추만대를 두고 절대로 용납할수 없는 대역죄를 저지른 리명박역적패당이 그에 대한 털끝만한 한 반성과 사죄도 없이 또 다시 특대형도발행위를 감행한것은 더는 용서할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우물하게도 하늘에 대고 사대질하는 리명박역도와 군부불한당들의 무분별한 대결망동은 반드시 피의 대가를 치르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김철민

평화를 사랑하고 전쟁을 바라지 않는 조선민족이지만 역적패당은 우리 겨레가 평화롭게 살지 못하도록 마지막까지 불화의 씨를 뿌리다 못해 불신의 화약더미에 불을 달아놓았다.

참고참아오던 복의 인쇄심은 지금 한계점을 넘어섰다. 복수의 일념이 복의 방방곡곡에 차넘치고있다. 만고역적 리명박을 그 냥 놔두지 않겠다 조선의 총대가 부르르 떨고있다.

남조선의 호전세력은 연평도가 어떻게 불바다가 되었는지 품품히 되새겨보아야 한다. 도발에는 징벌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성전으로 단호히 대답하는것은 인민군대의 기질이고 조선의 초강경립장이다.

역적패당은 저들이 저지른 엄청난 죄악의 대가가 얼마나 쓰고 참혹한것인가를 이제 똑똑히 알게 될 것이다.

허성철

## 사탄의 무리들을 지옥의 기름가마에

남조선의 리명박패당이 또 다시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모독하였다든 경악할 사실에 접한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은 지금 치우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있다.

역적패당이 민족의 대국상을 모독하는 고사하고 남조선인민들의 조문길을 가로막은것으로도 모자라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건드리며 아직 상복도 벗지 못한 동족의 가슴에 또 다시 칼질을 한것은 지옥의 기름가마에 처넣어도 씨런치 않을 대죄악이다.

명색이 그리스도교장로라는 리명박과 그 패당은 《비핵, 개방, 3 000》과 같은 대결정책을 북남관계의 《성서》처럼 내뿜으며 남조선인민들을 기만하고 동족적대감을 고취해왔다.

그 역적무리들에 의하여 6. 15시대에 남조선인민들의 마음속에 존경과 추앙의 모습으로 새겨진 백두산위인들의 영상이 모두되고 거리와 마을들에 휘날리던 공화국기 말이 오늘은 대결 《표적》이



하루강아지의 말로

# 이 하 늘 아 래 같 이 살 수 없 다

## 생명보다 더 귀중한 민족의 최고존엄을 위하여

인간이 못할것 가운데 가장 너절할것의 하나가 남을 곁고드는데 있다 하였다. 입을 눌러도 상대를 바로 보고 놀려야 한다.

세상에 물도 없는 역적들, 짐승만도 못한 역적무리들이 감히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건드리는 중상모독행위를 감행하였다니 격분을 금할수 없다.

이인위천을 정치리념으로 삼고서 한평생 조국과 겨레를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백두산위인들은 민족의 존엄과 자주성의 상징, 승리의 기치이다. 위대한분들을 믿고 따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는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다. 대국상을 치른 지난해 12월의 나날 전 세계 인류가 조선인민이 자기 영도자를 얼마나 순결하게 받

고고 따르며 존경하는가를 똑똑히 보고 절감했다. 유독 초고드는데 인민도덕도 없고 대결의식만이 골수에 밴 정치무능아, 저렬한 인간쓰레기 남조선의 역적패당이 피눈물을 흘리는 동족의 가슴에 칼질을 했고 슬픔을 함께 하며 조의를 표시하려는 남녘민심의 북행까지 가로막는 악행을 저질렀다.

그런데 최근 남조선의 역적패당이 무엄하게도 우리 인민의 최고존엄을 또다시 중상모독한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참을수 없는 도전이다.

우리 공화국의 《체제변화》와 《붕괴》를 꿈꾸어 온 역적패당이 이제는 민족의 최고존엄까지 건드리는 망동짓을 했으니 어찌 용서할수 있겠는가.

최근 남조선보수당국이 그 무슨 《북풍》이란것을 조작하여 불리한 《총선》국면을 저들에게 유리하게 역전시키려 하고있다.

그들은 지난해부터 끌어오던 《왕재산간첩당사건》에 대한 재판놀음을 부랴부랴 벌려놓고 공화국과 억지로 연결시키면서 관계자들에게 중형을 들씩 행하였다. 이와 함께 남조선의 《민족21》 잡지 발행인과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공화국에 포섭되어 《간첩》활동을 하였다는 《신북풍사건》을 조작할 흉계밑에 전혀 무거운 잡소리들을 내들리며 사회적으로 살벌한 공안분위기를 조성하고있다. 남조선군부호전장들도 《총선》전야에 미국과 야합한 《키리졸브》, 《독수리》 북침전쟁연습소동을 대대적으로 벌려놓

음으로써 저들에 대한 민심의 비난과 규탄을 다른데로 유도해보려고 꾀하고있다. 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보려는 리명박독재 《정권》의 《북풍》 조작책동은 이번만 이 아니다.

2009년 7월의 《더도스공격사건》과 2010년 미중유

의 모략국인 합성침몰사건도 《북풍》을 만들기 위해 조작한것이다. 저들의 반인민적악정으로 인민들이 아우성치면 《남남갈등》을 부추긴다고 《북풍》을 만들고 민주주의위가 벌어지면 《안보불안》을 조성한다고 동족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역적패당이 다. 조선반도의 정세 긴장으로 의자가 빠져나가면 또 북의 탓이라며 《북풍》 조작에 열을 올리고있다. 지

금 리명박보수집권세력은 이번 《총선》에서 20~40대를 쟁취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안보교육》이라는 미명하에 파산에 처한 《원칙있는 대북정책》과 《한미동맹》이 《안보》에 유리하다는 터무니없는 꾀를 들이려는 동족들에게 강제주입시키려 하고있다. 더우기 《장병은 국군통수권자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면서 사병

들이 민주개혁정당들을 지지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심지어 인기는 정치풍자방송인 《나팔수》에 대한 시청마저 금지시키고있다.

최근에도 리명박보수당국은 공화국에 죄를 짓고 도주한 인간쓰레기들까지 내세워 《탈북자경제복흥반대》

《(총선)과 (대선)에 리용》하려는 범죄적시도라고 일제히 평하고 있다. 남조선의 진보단체들과 야당들도 《(새누리당)이 (총선)과 (대선)에서 (북풍)을 리용하려 할수 있다.》고 하면서 보수당국의 《북풍》 조작책동을 강력히 규탄해나가고 있다.

현실은 리명박보수당국의 《북풍》 조작책동이 최악의 위기에 처한 자들, 죽어가는자들의 단말마적발악이고 그러한 시련연극으로는 결코 파멸에서 벗어날수 없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리명박당국의 《북풍》 조작은 오히려 더 큰 《반리명박, 반(새누리당)》폭풍을 몰아올것이며 분노한 민심은 역적패당을 단호히 매장하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윤현주

## 위기모면을 위한 단말마적발악

지금 리명박보수집권세력은 이번 《총선》에서 20~40대를 쟁취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안보교육》이라는 미명하에 파산에 처한 《원칙있는 대북정책》과 《한미동맹》이 《안보》에 유리하다는 터무니없는 꾀를 들이려는 동족들에게 강제주입시키려 하고있다. 더우기 《장병은 국군통수권자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면서 사병

들이 민주개혁정당들을 지지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심지어 인기는 정치풍자방송인 《나팔수》에 대한 시청마저 금지시키고있다.

최근에도 리명박보수당국은 공화국에 죄를 짓고 도주한 인간쓰레기들까지 내세워 《탈북자경제복흥반대》

《(총선)과 (대선)에 리용》하려는 범죄적시도라고 일제히 평하고 있다. 남조선의 진보단체들과 야당들도 《(새누리당)이 (총선)과 (대선)에서 (북풍)을 리용하려 할수 있다.》고 하면서 보수당국의 《북풍》 조작책동을 강력히 규탄해나가고 있다.

현실은 리명박보수당국의 《북풍》 조작책동이 최악의 위기에 처한 자들, 죽어가는자들의 단말마적발악이고 그러한 시련연극으로는 결코 파멸에서 벗어날수 없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리명박당국의 《북풍》 조작은 오히려 더 큰 《반리명박, 반(새누리당)》폭풍을 몰아올것이며 분노한 민심은 역적패당을 단호히 매장하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윤현주

이런 모략소동은 그 필사적인 몸부림에 불과하다. 리명박패당은 《탈북자》 문제에 관심이 있는척 하면서 그의 《인도적처리》니 뭐니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저들의 흉심을 가리우기 위한 철면피한 꾀변이다.

그 속이 얼마나 뻔뻔하면 내외신들까지 괴뢰패당의 《탈북자복흥반대》모략소동에 대해 선거와 관련한 《대내외적응》이라고 평하고있겠는가.

동족대결과 반인민적악정으로 립종의 운명에 처한 괴뢰패당이 물에 빠진 놈 지푸라기 잡는 격으로 《탈북자》소동에 매달려 궁지에서 벗어나보려는 단말마적발악이다.

지금 남조선은 경제와 민생파탄으로 인민들의 원성이 하늘에 닿고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리명박패당을 저주하며 목숨을 끊거나 남조선에서 떠나고있으며 그가운데는 북에서 유인람치핵간 사람들도 있다.

괴뢰패당은 민심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기세를 모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으며 미친개처럼 아무나 막 물어메치고있다.

본사기자

## 우리의 총대는 동서치 않는다

우리의 최고존엄을 감히 건드린 리명박역적패당의 특대형도발행위에 접한 우리 로동적위대인들의 분노는 하늘에 닿았다.

민족의 대국상에 대해 슬퍼하지는 못할망정 동족의 아픈 가슴에 칼질을 하고 제와 야합하여 반공화국핵전쟁연습을 벌리는것도 모자라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조상화들의 아래우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끝까지 씨벌이는 천

하무도의 망랑짓을 일삼은 역적패당이야말로 전대미문의 히스터리정신병자, 인간리 탈을 쓴 짐승의 무리들이다.

천벌을 받아 이미 저승에 갔어야 할 역적무리들이 한 지맥으로 잇닿은 이 강토에 살아숨쉬고있다는것자체가 비극이 아닐수 없다.

지금 전체 우리 로동적위대인들은 인간도물들을 총대 로 쓸어버릴 결전의 시각만

을 기다리고있다. 한다면 하는것이 백두산강군의 기질을 지닌 우리 로동적위대인들이다.

우리 로동적위대인들은 만장약된 복수의 감정을 화산처럼 폭발시켜 우리의 존엄에 불질을 해댄 불한당들에게 진짜 총대방이 어떤것인가를 똑똑히 보여주고야말것이다.

평양326전선공장 로동자 리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리명박패당이 《탈북자복흥》문제를 결코 전례없는 모략소동을 벌리고있는것과 관련하여 2월 25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최근 괴뢰패당은 《탈북자》수집명이 중국공안에 체포되어 《강제복흥될 위기》에 처했다고 하면서 《복흥중지》니 뭐니 하고 열을 올리고있다.

리명박역도와 괴뢰통일부장관 류유익, 괴뢰외교보상부, 《새누리당》 등 보수파계리들은 그 무슨 《난

## 조선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 리명박패당의 모략소동을 규탄

민》을 운운하며 《국제규범》에 따르는 처리》를 고야애는가 하면 우익보수단체들과 온갖 인간쓰레기들까지 끌어내어 《항의》를 부리고 있다.

괴뢰적외교부의 《탈북자복흥반대》소동은 또 하나의 용납 못할 반공화국모략판관으로서 우리 공화국의 높은 존엄을 깎아내리고 저들의 유인람치행위의 진상을 가리우며 대결책동을 정당화하려는 불순한 망동이

며 조종관계에 리간을 조성하고 조선반도긴장완화를 위한 유관국들의 노력을 찬물을 끼얹기 위한 비렬한 술책이다.

원래 《탈북자》문제는 난민문제가 아니며 적대세력의 반공화국제대안살소동과 우리의 리명박패당에 대한 유인람치책동의 산물이다.

특히 괴뢰보수패당은 인권과 종교의 탈을 쓴 거간군들을 동원하여 막대한 돈을 뿌려가며 우리 주민들을 집단적으로 유인람치하여 남조선에 끌고가 반공화국심리모략전에 내몰고있다.

얼마전에도 괴뢰통일부는 《제3국을 통한 리산가족교류에 대한 지원액의 대폭인상》이니 뭐니 하며 유인람치책동에 더욱 매달리려는 극악한 속심을 드러냈다.

괴뢰패당은 저들의 유인람치책동이 내외의 규탄과 배격을 받아 뜻대로 실현할수 없게 되자 지금 열도당도않게 시비질하면서 해괴한 외교적

망동을 부리고있는것이다.

불법결정자들을 해당 나라와 립정국사이의 법과 협약에 따라 처리하는것은 당연한 주권행위이다.

괴뢰들의 모략소동은 이러한 초보적인 상식도 국제법관계도 모르는 주제넘은 간섭이며 그들의 대결적책동을 그대로 드러낼뿐이다.

괴뢰패당의 모략소동은 또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론의 이목을 떠돌려 궁지에서 벗어나보려는 단말마적발악이다.

지금 남조선은 경제와 민생파탄으로 인민들의 원성이 하늘에 닿고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리명박패당을 저주하며 목숨을 끊거나 남조선에서 떠나고있으며 그가운데는 북에서 유인람치핵간 사람들도 있다.

괴뢰패당은 민심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기세를 모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으며 미친개처럼 아무나 막 물어메치고있다.

본사기자

이런 모략소동은 그 필사적인 몸부림에 불과하다. 리명박패당은 《탈북자》 문제에 관심이 있는척 하면서 그의 《인도적처리》니 뭐니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저들의 흉심을 가리우기 위한 철면피한 꾀변이다.

그 속이 얼마나 뻔뻔하면 내외신들까지 괴뢰패당의 《탈북자복흥반대》모략소동에 대해 선거와 관련한 《대내외적응》이라고 평하고있겠는가.

동족대결과 반인민적악정으로 립종의 운명에 처한 괴뢰패당이 물에 빠진 놈 지푸라기 잡는 격으로 《탈북자》소동에 매달려 궁지에서 벗어나보려는 단말마적발악이다.

지금 남조선은 경제와 민생파탄으로 인민들의 원성이 하늘에 닿고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리명박패당을 저주하며 목숨을 끊거나 남조선에서 떠나고있으며 그가운데는 북에서 유인람치핵간 사람들도 있다.

괴뢰패당은 민심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기세를 모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으며 미친개처럼 아무나 막 물어메치고있다.

본사기자



리명박역적패당의 퇴진을 요구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지금 남조선에서는 동족을 반대하는 위협천만한 전쟁연습의 총포소리가 그칠새 없고 전쟁화약배가 질게 감돌고있다.

공화국의 강력한 경고와 온 겨레의 평화지향에 도전하여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광란적으로 벌어지고있는 전쟁불장난소동과 역적패당의 새로운 특대형도발행위로 말미암아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정세는 다치면 터질듯 한 최악의 위기국면에 빠져들고있다.

둘이켜보면 리명박패당은 지금까지 북남관계문제에서 그 무슨 《진정성》에 대해 입버릇처럼 외워왔다.

취임 4년을 맞은 2월말에도 리명박은 《특별기자회견》에서 《북이 진정성을 갖고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열린 마음으로 맞을것》이니 뭐니 하는 낯간지러운 소리를 하였다. 역도가 《신년국정특별연설》이라는에서 《기회》의 창》이요, 《상호불신해소》요 하며 《북의 진정성있는 태도》에 대해 떠들어댄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리명박보수패당의 《진정성》타령은 북남관계과국의 책임을 모면하고 저들의 대결적책동을 가리우기 위한 위장술에 불과했다.

역적패당은 지금까지 《진정성》을 웨치면서 북남관계과국의 한길로 내달려왔다.

《진정성있는 대화》니, 《가

슴을 연 대화》니 하면서 그 누구의 《진정성》을 운운해온 리명박패당은 그것을 코에 걸고 북과 남사이의 모든 대화와 협력사업들을 차단하고 북남관계를 틀어쥐고있는 파국의 나라에 몰아넣었다.

남조선보수패당 스스로가 극도로 천에한 북남관계가 《정상》이고 《입기기간에 북과 대화하지 않아도 좋다.》고 내놓고 공언하였다.

동족대결의식이 골수에 찬 리명박이 앞장에서 존엄을 공화국의 체제를 함부로 시비중상하면서 《3단계 통일방안》이니, 《통일세》니 하며 집권 4년간 어리석은 체제대결야망에 떠들다 돌아왔다. 역도가 직접 미국상진을 여러차례나 찾아가 저들의 대결적책동에 대한 지지를 구걸하며 《내외의 비판을 받더라도 (대북정책) 변화는 없을것》이라는 망언을 공공연히 늘어놓는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역적패당은 정보원과 국방부, 통일부를 비롯한 정보모략기관들과 국유보수단체들, 추악한 인간쓰레기들을 총동원하여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건드리고 제도를 헐뜯는 각양각색의 반공화국심리모략전에 집요하게 매달려왔다. 입

으로는 《진정성》을 너꺼리고 돌아앉아서 그 무슨 《급변사태》를 유도하고 《체제전복》을 이루어보려는 얼빠진 개꿈을 꾸며 《기다리는 전략》으로 집권 4년을 흘려보내었다.

리명박패당의 동족대결책동은 지난해말 민족의 대국상에 절정에 이르렀다.

민족적량심과 초보적인 도의도 모르는 역적패당은 대국상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청와대와 행정부, 남조선전과 경찰에 《비상경계령》, 《비상근무령》을 내려 피눈물을 흘리고있는 동족에게 총부리를 들이쳤으며 《북지도부와 주민들의 대응》을 부르짖으면서 감히 공화국의 일심단결을 흔들어보려고 어리석게 늘어났다.

이렇듯 《진정성》의 간판뒤에서 극도의 동족대결정책에 매달려온것이 리명박패당이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리명박은 자신의 《진정성》에 진정으로 결여된것이 무엇인지 반성해야 한다》. 《6.15공동선언, 10.4선언정도와 리행의 다짐이 빠진채 《진정성》을 호소하는것이야말로 트집잡기》라며 보수당국을 강력히 성토해왔다.

남조선보수패당은 얼마전에도 《리산가족상봉을 위한 실무접촉》을 제의한다고 하면서 거덜이 난 《진정성》타령을 또다시 늘어놓았다. 이것도 광란적인 동족대결책동으로 북남관계를 완전히 거덜이 나게 만든 장본인이 오늘과 같은 파국적인 현실속에서 뻔히 실현될수 없는것을 알면서도 그 책임을 북에 전가시켜보려는 음흉한 속심에서 출발한것이었다. 이미 북남사이의 인도의문제해결을 위한 공화국의 적십자회담제에 부당관계적 조건부들을 내걸고 응하지 않고있다가 《적십자회담을 진전시키면 끝내 회담을 파란시켜버렸던 역적패당이다.

민족의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몸부림치는 동족에게 칼질을 해댄 천하의 악독한자들이 제가지는 대역죄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사죄도 없이 《진정성》이니, 《대화》니 하는것자체가 공화국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고 우롱이었다.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전쟁연습불장난을 벌린것부러가 포괄적인 대화부선언이고 동족을 대화상대가 아닌 적으로 여기는 참을수 없는 도발

행위이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공화국의 시종일관한 대화제에는 《진정성》이 없고 동족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에는 과연 《진정성》이 있다는것인가.

남조선 각계에서는 《(리산가족상봉)을 제안해놓고 며칠뒤 실란을 쓰는 군사훈령》을 하고있는 보수당국의 《진정성》타령을 조소하며 항의집회와 시위들을 계속 벌이고있다.

지금 옹군 하나의 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방대한 무력이 동원된 가운데 하늘과 땅, 바다에서 광란적인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벌리는 가운데 감행된 공화국의 최고존엄에 대한 무지한 강대국의 새로운 특대형도발행위를 역적패당의 《진정성》이라는것이 공화국과 끝까지 대결하고 전쟁화자는데 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특히 엄중했은 이번 전쟁연습이 공화국의 가슴아픈 애도기간을 그리고 의도적으로 감행되는 리명박역적패당과 미국의 화약배풍기는 전쟁연습이라는데 있다.

이번에 남조선의 포항일대에서

《경향신문》이 2월 22일 집권 4년동안 그 무슨 성과를 이룩한듯이 자랑을 늘어놓고있는 당국을 비난하는 사실을 실었다.

사실은 청와대가 21일 《리명박정부 4년 경제분야 주요성과》라는 자료를 발표한데 대해 밝혔다.

여기서 청와대는 뻔뻔스럽게도 리명박에게 불리

한 내용들을 빼고 모든것이 잘되고있는듯이 거짓을 늘어놓았다고 사실은 비난하였다.

사실은 특히 물가폭등의 원인이 당국의 정책때문이라 아니라 원자재가격락이라고 진실을 외곡한것은 국민을 기만하려는 의도라고 규탄하였다.

이밖에 리명박경제정책의

핵심인 부자감세나 4대강사업에 대한 문제는 밝히지조차 못하고있다고 사실은 비난하였다.

사실은 오늘의 사태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민생정책실현에 달라붙어도 부족할 청와대가 찬양만 늘어놓았으니 더이상 기대할것이 없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침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이후 23년만에 처음으로 되는 사상 최대규모의 연합군사훈련이 벌어지게 된다.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파들은 공화국의 인민들이 가장 큰 상심의 아픔을 아직 가시지 못하고있는 지금을 지난 60여년동안 이뤄지 못한 침략적책동을 실현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기면서 대규모의 전쟁연습으로 북을 자극하고 특대형도발행위로 대응을 유도하여 북남사이에서 연평도도발전과 같은 군사적책동을 야기하고 거이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 하고있는것이다.

남조선호전파들은 지금까지 북에 대한 《선제공격》을 가상한 《국방개혁기본계획》이니 뭐니 하는것을 내들리며 《제동기가 파멸된 폭주기관차》처럼 질주해왔다.

북에 선봉질을 하였다가 되게 얻어맞고 《천추의 한》이니, 《울화통이 터진다.》느니 하고 광기를 드러내면서 북침도발을 앞장서 선동한자들이 리명박호전세력이다. 리명박은 6.15공동선언발표기념일에 맞추어 《서북도서방위사령부》라 는것을 조작하게 하고 《철저한

응징》을 력실하는 《축사》까지 보냈으며 직접 남조선군부대들을 찾아다니며 반공화국적대감과 군사적대결을 고취하는 들을을 누구보다 악랄하게 벌려왔다.

병도의 부추김에 열이 오른 국방부장관김관진을 비롯한 호전파들은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감히 모독하는 전례없는 특대형도발사건들을 연이어 일으킴으로써 조선반도정세를 일촉즉발의 위기에 몰아넣고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 온 민족의 격분이 더욱 하늘에 닿게 하였다.

지금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쌓이고쌓인 원한과 분노를 총폭발시켜 민족의 대국상을 모독하고 무분별한 중상모독행위를 감행해나선 천하야만들인 리명박역적패당을 깨끗이 쓸어버리고 조국통일위업을 거이이 이룩하고야 말 의지에 넘쳐있다.

시대의 흐름과 민족의 지향에 역행하여 최악우에 최악을 덧쌓아온 역적패당은 이미 산송장으로 전락된지 오래다.

광란적인 북침전쟁도발책동과 극악무도한 반인민적, 반공화국대결책동으로 남조선보수패당에 대차대결되는 썩어빠진 반인민적책도의 붕괴와 천미사대 《정권》의 종말뿐이다.

력사와 겨레는 반인민적이며 반동적인 리명박보수 《정권》에 준엄한 철추를 안기고야말것이다.

진광혁

전쟁광신자의 부질없는 광기

2월 21일 남조선의 국방부 장관 김관진... 《방위위세 현장점검》의 미명하에 남조선군 1군사령부와 18전투비행단, 해군 1함대 등 동부전선 육, 해, 공군부대들을 찾아가 그 누구의 《내부결속차원의 도발》이니, 《4월 도발가능성》이니 뉘니 하면서 전쟁열을 고취하였다. 그는 《힘을 과시할 가능성》이니 뉘니 하며 무엄하게도 공화국의 최고주권을 모독하는 망발도 거러낌없이 내뱉었다. 이보다 앞서 20일 서해 해상에서의 포실탄사격때에는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 나타나 《대비태세》를 보고받으면서 《북이 도발하면 현장 지휘관들이 우에 묻지 말고 알아서 사격하라.》는 폭언을 늘어놓았다. 하루강자지 범 무서운줄 모르는 격의 망동이 아닐수 없다. 입에서 구멍이 나가는지 무엇이 나가는지도 모르고 함부로 악담질을 해댄 김관진의 망동은 공화국의 최고주권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으로서 우리 민족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오는 4월은 공화국에서 민족최대의 명절을 맞는 의의깊은 달이다. 뜻깊은 이 달을 맞으며 지금 공화국인민들은 강성부흥의 전성기를 열기 위해 세월을 앞당기며 합작계 전진하고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김관진이 그 무슨 《4월 도발가능성》을 떠든것은 푸른 하늘에서 비가 떨어진다것과 같은 억지개변이고 공화국에 대한 또 하나의 도발이다.

령도자와 인민이 하나의 운명공동체로 혼연일체를 이룬 공화국은 이며 여러차례에 걸쳐 자기의 최고주권을 건드리는자는 지구상 그 어디에 있는 심벌적타격을 안길것이라고 경고한다. 전쟁열에 들떠 리성을 잃은 나머지 김관진은 자기의 호전적격기가 어떤 비참한 대가를 치를것인지 아직 상상도 못하고있는것 같다. 《묻지 말고 사격》해서 저들한테 돌아올것은 불바다이고 개죽음뿐이다. 김관진이 쑥대우에 올라선 민중이마냥 허장성세하면서 공화국의 무자비한 초강경대응으로 잔뜩 공포에 질려있는 남조선군의 저조한 사기를 어떻게 하나 주세워 북침전쟁연습에 내몰아보려 하지만 그것은 한갓 부질없는짓이다. 오늘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정세가 조성되어있다. 이러한 긴장국면은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함께 친미사대, 동족에 대한 불신감을 체질화한 김관진과 같은 대결광신자, 외세의 전쟁사환군들의 무모한 대결소동에 의해 초래된것이다. 대양건너 지구의 반대쪽도 아닌 공화국의 교양에서 민족의 최고주권을 건드리며 전쟁의 불질을 터뜨리기 위해 분별없이 날뛰는 김관진과 같은 호전광들은 반드시 비참한 종말을 면치 못할것이다.

김음철

역적패당에게 차례질것은 비참한 종말뿐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남조선호전광이 공화국을 건고들며 북침전쟁열을 고취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1일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991호를 발표하였다. 보도는 다음과 같다. 최근 극악한 대결분자인 괴뢰국방부 장관 김관진이 괴뢰군부대들을 싸다니면서 호전적광기를 부리고있는것으로 하여 온 겨레의 치솟는 증오와 격분을 자아내고 있다. 이자는 얼마전 《방위위세 현장점검》의 명목밑에 괴뢰군 1군사령부와 18전투비행단, 해군 1함대 등 부대들을 돌아치며 《북이 도발할 가능성》이니 《4월 도발가능성》이니 하는 악담을 꿰차다 못해 감히 우리의 주권과 체제를 모독하는 망발도 서슴지 않았다. 이에 앞서 김관진은 백령도와 영평도일대에서 벌려놓은 포실탄사격열음때에도 괴뢰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 나타나 그 누구의 《도발》을 운운하면서 리우여하를 막론하고 즉시 대응하라고 악에 받쳐 고아였다. 이것은 반공화국적대감이 끝수에 박힌 악질대결분자의 체질적동등으로서 우리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며 악랄한 도적이다. 김관진은 원래부터 미국상전의 침략전쟁책동과 당국의 대결정책을 극구 찬양하면서 북침전쟁과 대결소동에 누구보다 광분해온 친미호전광이며 추악한 민족반역자이다. 이자는 국방부 장관자리에 올라앉자마자 군에 《안보관》과 《주적관》을 심어주어 아 한다고 떠들면서 동족대결의 시과 전쟁열을 악랄하게 고취하였는가 하면 《완벽한 대응세》니, 《단호한 응징》이니 하는 호전적폭언들을 꿰치며 괴뢰군을 북침전쟁도발에 내몰아왔다. 김관진적은 연평도에서 도발을 걸었다가 우리의 단호한 징벌을 받는데 대해서

《적개심을 불태우며 이를 갈면서 속을 썩였다.》니, 《도발원점은 물론 지원세력까지도 응징해야 한다.》니 뉘니 뉘니 하고 히스테리적광기를 부리며 반공화국도발소동을 미친듯이 벌렸다. 남조선도처에 널려있는 괴뢰군호전광들에게 우리의 최고주권과 체제를 헐뜯는 표적까지 만들어놓고 총탄을 쏘아대게 한 친우에 용납 못할 특대형범죄를 저지른 주범도 바로 김관진적이었다. 특히 이자는 리명박역도와 한짜이 되어 민족의 대국상을 모독하고 크나큰 슬픔에 잠겨있는 동족에게 총부리를 내대는 극악무도한 대역죄를 저지른 친하에 폐륜패덕한이 며 한하를 이고 살수 없는 민족의 원수이다. 외세에는 아부하고 동족에게는 총칼을 내대는 김관진적은 최근에 막대한 괴뢰군부력을 동원하여 조선서해 5개 섬을 비롯한 우리와 름접한 지역들에서 미제

침략군과의 야합하에 무모한 북침불장난소동을 일삼아 벌려왔으며 지금 이 시각도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에 발벗고 나서는것으로써 더러운 잔명을 부지해보려고 리성을 잃고 날뛰고있다. 북남관계가 완전히 파탄되고 조선반도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위험한 정세가 조성된것은 바늘 찌미사대와 동족대결, 북침전쟁책동에 미쳐난 리명박역도와 그에 추종하는 무지막직한 호전광 김관진과 같은 대결광신자들, 외세의 전쟁사환군들때문이다. 현실은 민족을 배반하고 외세에 아부하는 더러운 역적패당, 무모한 호전광들을 그대로 두는것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대해 꿈조차 꿀수 없으며 온 겨레가 전쟁의 참화를 면치 못할수밖에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지금 역적패당이 동족에 대한 악랄한 비방중상을 일

삼으며 북침전쟁책동에 열을 올리고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선군위력앞에 기가 질리고 반민족적죄악으로 하여 민심의 저주와 버림을 받아 름종에 처한 반역무리의 발악적인 몸부림에 불과하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세상 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무엄하게 날뛰는 리명박역도와 김관진과 같은 대결미치광이들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며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징벌하고야말것이다. 만일 괴뢰역적패당이 우리의 거들떠는 경계에도 불구하고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다면 강력하고 무자비한 보복격으로 전쟁의 근원을 완전히 들어내며 역적무리들을 이 땅우에서, 이 하늘아래서 영영 쓸어버릴것이다. 대세에 역행하여 분별없이 날뛰는자들에게 차례질것은 비참한 종말뿐이다.

본사기자

《선거》를 노린 계획적인 탄압소동

대한 남조선당국의 가혹한 탄압은 지금 온 겨레의 격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현 남조선당국이 집권이후 인민들의 자주통일운동을 가로막고 통일운동세력을 말살하기 위해 발악해온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보수당국이 이른바 《보안법》위반을 떠들며 무분별하게 감행하여온 시민주권단체성원들에 대한 탄압은 남조선 각계층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그들의 정당한 투쟁에 의해 구속, 기소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현실이 이러한에도 불구하고 올해에 들어와 남조선보수당국이 진보세력에 대한 탄압소동에 더욱 광분하고있는데는 불순한 목적이 있다. 이제 얼마 안되어 남조선에서는 《국회의원선거》가

진행되게 된다. 집권기간 북남관계를 완전히 파국상태에 몰아넣고 남조선사회의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심화시켰을뿐 아니라 부정부패를 일삼는것으로 하여 지금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완전히 수세에 몰려있다. 헤어나올수 없는 궁지에 빠진 남조선보수패당은 《선거》를 앞두고 《북의 지령》이니, 《회합, 통신》, 《찬양, 고무》니 하는 당치도 않는 《죄》를 들쭉거리며 진보세력에 대한 광란적인 탄압을 벌임으로써 저들에게 쏘린 여론의 이목을 단대로 돌리고 보수세력을 끌어모아 재집권야망을 실현해보려고 여러차례 책동하고 있는것이다. 《선거》를 노린 남조선보

수세력의 융흥한 책동은 최근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탈북자》소동에서도 집중적으로 드러나고있다. 남조선의 현 집권자를 비롯한 극우보수분자들이 련히 나서서 《국제구범에의해 처리》하라니 뉘니 하며 목에 피대를 돌구는가 하면 《단식투쟁》이라는 해피망축한 소동까지 벌어지고있다. 남조선당국이 말도 되지 않는 《탈북자》문제를 걸고 반공화국모략소동에 열을 올리고있는것도 결국은 남조선사회에 동족대결분위기를 고취하고 보수세력의 환심을 얻어 《선거》에서 지지표를 끌어모으기 위해서이다. 불순한 목적을 가진 남조선보수패당의 이와 같은 탄압과 모략소동은 남조선사회

각계층의 응당한 분노를 불러일으키고있다. 남조선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언론들은 한결같이 남조선당국의 비렬한 책동이 야말로 《4.11 (총선)》에서 리명박과 《세누리당》을 심판하려는 국민의 단결투쟁의 노력에 어떻게든 찬물을 끼얹어보려는 가련하고 미련한 몸부림》, 《량대 (선거)》를 앞둔 공안물이의 정치적음모, 《정권》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공안정국 조성》이라고 규탄배격해나서고있다. 온갖 비렬한 방법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저들의 수명을 연장해보려는 남조선보수패당의 불순한 속심은 오늘 만천하에 드러났다. 남조선당국은 진보세력에 대한 광란적인 탄압과 반공화국모략소동이 어떤 후과를 초래하겠는가를 깊이 생각해보는것이 좋을것이다. 김증순

법원의 반통일적인 판결을 규탄

조국통일법민족연합 남측본부가 법원의 부당한 반통일적인 판결을 규탄하여 2월 23일 판결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른바 간첩단사건인 《일진회사건》으로 구속한 통일운동가들에게 징역형을 비롯하여 중형을 선고한데 대해 폭로하였다. 리명박 《정권》의 정치시너로 전락되어 반민족, 반통일적인 판결을 내린 법원의 죄행을 강력히 성토했다

고 성명은 지적하였다. 성명은 법원이 《일진회》의 조직실체가 없음을 이미 확인하고서도 《북공작원》과 회합하였다.》니, 《자유민주주의질서에 해악을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니 뉘니 하며 통일운동가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까뻐했다.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원의 사진 필장을 놓고 애국인사들을 간첩으로 몰아대는것은 파쇼적행위라고 성

명은 단죄하였다. 본래로 고통받는 우리 민족 누구나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것은 너무나 당연한것이라고 하면서 악법에 걸려 민족의 통일념원을 짓밟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죄를 들씌운 망동을 결코 용납할수 없다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성명은 리명박독재 《정권》의 공안탄압에 맞서 투쟁을 계속 벌려나갈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본사기자

북남관계를 막아온 장벽들을 허물라

남조선신문 《한겨레》가 2월 25일 사설에서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을 철회할것을 남조선당국에 요구하였다. 신문은 남측이 조선반도

평화와 안정의 회방근로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당국이 《5.24조치》를 비롯하여 남북관계를 막아

온 장벽들을 과감하게 허물고 《대북정책》의 틀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신문은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대규모북침전쟁연습을 견결히 반대한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2월 27일 《미국과 남조선 호전광들의 대규모북침전쟁연습을 견결히 반대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내외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리명박역적패당이 남강도 미제와 야합하여 또다시 우리 공화국을 과격으로 삼은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는 길에 들

어섰다고 규탄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는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기 위해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있는데 대해 치솟는 민족적분노로 준렬히 단죄한다고 하면서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반공화국전쟁책동이 가져올 엄

중한 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경계망동하지 말아야 하며 무모한 북침전쟁연습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 특히 남조선괴뢰당국은 미국의 범죄적인 대조선침략책동에 추종해나서는것은 민족의 념원을 짓밟고 북남관계 발전을 해치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범죄행위라는것을 똑똑히 알고 미국의 부질없는 불장난에 총추지 말아야 할것이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는 미국과 남조선괴뢰당국이 벌리고있는 무모한 북침전쟁연습을 견결히 반대하며 지체없이 견치울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일 침략자들이 끝끝내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재중조선인들은 조국인민들과 함께 전쟁도발자들에게 무자비한 심벌적타격을 안기고 통일된 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울것이다.



미국의 합동군사연습은 명백히 공격연습이다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미군문제팀장》 유영재가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의 발광적인 북침전쟁연습이 개시된것과 관련하여 2월 27일 자주민보사 기자와 회견하였다. 그는 남조선미국 《련합군사령부》가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명백히 공격연습이라고 단죄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평 통 사 성 원 이 주 장 하지만 전전전과 국지전, 그 누구의 《금번사태》를 가상한 이번 군사연습은 북의 최고주권을 건드리고 방대한 무력을 북으로 침투시키는것 등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명백히 공격연습이라고 그는 비난하였다. 그는 미국이 앞에서는 북과의 《대화》를 운운하고

뒤에서는 대화상대방을 목표로 한 군사연습에 돌아다니는것이야말로 대조선압살정책을 버리지 않으려는 진짜 속심을 드러내보인것이라고 규탄하였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호전세력이 북침공격연습을 중지하고 양

로의 모든 전쟁연습계획을 철회하는것과 함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남조선미군동맹을 폐기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그는 침략전쟁연습을 중지시키자면 그 불법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모든 민중이 미군철수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북침전쟁연습의 중지를 요구

재미동포전국련합회 대변인이 2월 28일 미국과 남조선 호전광들의 북침전쟁연습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미제와 남조선 호전광들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해내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북침전쟁연습을 벌려놓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호전광들의 무모한 북침전쟁책동으로 조선반도에서 군사적긴장이 고조되고있다고 성명은 단죄하였다. 성명은 《대화》를 운운하며 북침전쟁연습을 강행하는 리명박 《정부》의 진자 속심이 과연 무엇인가고 반문하였다. 집권기간 겨레의 통일념

원을 짓밟고 남북관계를 파탄내고도 모자라 북침전쟁연습으로 조선반도긴장을 고조시키는 리명박 《정부》의 반민족적, 반통일적행위는 민족의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성명은 주장하였다. 성명은 미제와 남조선 호전광들이 북침전쟁연습으로 북을 놀려올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으며 민족의 통일념원은 절대로 막을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성명은 미국과 리명박 《정부》가 조선반도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위험이 과연 무엇인가고 반문하였다. 본사기자

남조선에서 리명박이 집권하기 전까지만 해도 북과 남사이에는 우리 민족끼리 치밀에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가 감돌았고 조선반도에는 화해와 안정이 깃들었다. 하지만 《실용정권》이 등장한 후 북남관계는 순식간에 열어붙었으며 전쟁위험이 그 어느때보다 더욱 고조되었다. 리명박은 력대 남조선 《대통령》당선자로서는 처음으로 국방부부터 싸다니며 《안보의식강화》가 남북관계의 정세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은 착각》이라느니 뉘니 하면서 북남관계에 찬물을 끼얹고 군부호전광들에게 반공화국대결의식을 불어넣었으며 지어 군사분계선일대대까지 나와 돌아치며 동족대결을 고취하였다. 하기에 당시 남조선인론들은 《대통령》당선자가 취임하기 전에 국방부에 드러나

반역 《정권》의 만고죄악을 고발한다 (4)

전쟁 불구름을 몰아오는 호전 《정권》

며 《안보》문제를 력설한것은 《력대 치음》이라고 놀라움을 표시하였었다. 이런자였기에 그는 집권하기 바쁘게 2만 7000여명의 미군부력과 핵추진항공모함 《니미즈》호, 전략핵잠수함 《오하이오》호 등 미제의 최신전쟁장비들을 끌어들이 부질없는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부터 벌려놓았다. 미국의 제배치와 《전시작전통제권반환》에 대비한다는 미명하에 2008년 8월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사상처음 그들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남조선호전집단은 상륙훈

련, 도하훈련, 해상공격 및 공중기습타격훈련 등 《선제타격》을 노린 실동연습을 벌리는 한편 남조선행정기관들까지 동원하여 북침전쟁도발에 대비한 준비상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였다. 더욱이 엄중한것은 남조선당국이 그 누구의 《금번사태》를 떠들며 《개년계획 5029》를 《작전계획 5029》로 만든후 개를 꾸미는것과 동시에 도발적인 《호국》 합동군사훈련을 벌려놓고 유사시 북을 《기습선제타격》할것을 검토한것이다. 남조선 각계에서 내외호전세력이 《호국》 합동군사연습을 통해 북침선제공격을 팔자로 하는 《개년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완성하려 한다고 평한것이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국도의 대결관념에 사로잡혀 통치활동의 첫 시작을 이렇게 맨 남조선집권자는 2009년에만도 미국과 결탁하여 《키리졸브》, 《독수리》, 《울지 프리덤 가디언》을 비롯한 합동군사연습을 무려 40여차례 (2008년의 1.3배) 벌려놓았으며 남조선군 단독훈련도 300여차례 (2008년의 1.2배)나 강행하였다.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라는 남조선당국의 범죄적행위는 모략적인 합선침몰사건을 계기로 절정에 달하였다. 합선침몰사건의 모략적진

상이 날날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그것을 《북의 도발》로 걸고 들면서 조선서해와 동해, 남해에서 외세와 야합하여 대규모의 련합해상훈련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훈련, 해상사격훈련을 련히 감행하였다. 뿐만아니라 남조선당국은 《서해 (북방한계선)》을 중심으로 한 서부지역은 안보의 핵심》이니 뉘니 하면서 해 5개 섬을 북침을 위한 전초기지로 전변시키고 계속 도발을 걸어오다가 끝내는 조선반도정세를 불과 불이 오가는 최악의 전쟁국면으로 몰아갔다. 남조선호전집단은 여기에

서 교훈을 찾을 대신 《북도발》설을 집요하게 류포시키면서 제2, 제9의 연평도도발을 일으키기 위한 전쟁도발책동에 열을 올렸다. 지금 이 시각에도 남조선당국은 내외의 한결같은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외세와 야합한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려놓음으로써 저들의 호전적정체를 여지없이 드러내놓았다. 당국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에 사로잡혀 전쟁만을 꿈꾸는 현 보수집권세력이 있는 한 조선반도정세는 언제가도 완화될수 없으며 우리민중에게는 핵전쟁의 재난박에 차례질것이다. 침략적인 외세를 등에 업고 전쟁의 불통치를 휘두르는 리명박 《정권》은 지은 죄로 하여 비참한 종말을 면할수 없을것이다. 한강성

# 내 조국의 자랑 선군 12경 (1)

선군12경은 조국의 장쾌함과 아름다움을 열두가지로 나누어 명명한 경치이다.

## ① 백두산의 해돋이

백두산의 해돋이는 백두산의 일만경치와 선군12경에서 제일가는 경치이다.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온심장에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고 미래에 대한 낙관으로 투지와 용맹을 백배해주는 백두산의 해돋이는 경애하는 김정은장군님의 거룩하신 모습이 그대로 어려있는 선군해돋이이다.

이른새벽의 어두운 구름속에서 한점의 새빨간 불꽃이 튀어올라 점차 붉은선으로 굵게 퍼져오면서 잠간 사이에 구름떼를 뒤버려놓고 끝없는 대지와 고원의 기이한 절벽들과 천지의 검푸른 수면을 하나의 진홍빛으로 물들여 장쾌함과 신비함의 절정을 이루게 한다.

## ② 다박솔초소의 설경

다박솔초소의 설경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피눈물에 잠긴 조국을 일떠세우시려고 다박솔초소의 병사들을 찾으시어 선군의 의지를 뚜렷이 피시하심으로 하여 승업하고 정답게 불려워지는 경치이다. 붉은 노을이 온 대지를 물들이는 1월의 아침 언젠나 한모습을 자랑하는 다박솔의 푸른숲과 흰눈의 순결함이 그대로 초소군인들의 불굴의 모습에 어울려 선군의 기상으로 펼쳐지고있으며 미래에 대한 낙관으로 유다른 감흥을 불러일으킨다.

## ③ 절령의 절죽

절령의 절죽은 경애하는



백두산의 해돋이

장군님께서 철령을 넘나드시며 최전연부대들을 찾으시어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신 선군실력이 담겨져있는 경치이다. 강원도 고산군과 회양군경계에 있는 아흔아홉굴이나 된다는 가파로운 철령의 비랑길주변은 봄에는 철쭉꽃으로 붉게 물들어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장정의 실록을 더욱 뜨겁게 새겨주는듯 하여 유난히 깊은 정서를 자아내고있다.

## ④ 장자강의 불야경

장자강의 불야경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영도밑에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락원의 행군으로 전변시

킨 강계정신의 생활력이 그대로 담겨져있는 경치이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잊지 못할 그 나날들을 추억하며 밤하늘의 별무리가 내려앉은 듯 온 강계시의 눈부신 락원의 불빛이 장자강반의 야경에 비겨 신비로운 절경을 이루고 독특한 장관을 펼쳐보인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자강방을 찾으시어 지퍼핀 선 강계정신의 불길은 그대로 이곳 인민들의 가슴속에 신평과 투쟁의 불길로 타올라 장쾌한 장자강의 불야경을 펼쳐놓았다.

## ⑤ 대흥단의 감자꽃바다

대흥단의 감자꽃바다는 우

리 조국을 감자명산지로 만들어 인민들의 식생활을 더욱 풍족하게 해주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이 비껴있는 사회주의 선경이다. 6월말부터 피기 시작한 감자꽃은 7월중순과 말경에는 일망무제한 온대 홍단밭을 하얗게 뒤덮고 흰과도 설레이며 넘실거리는 감자꽃숲의 아득한 장쾌함과 황홀경은 배일을 대한 희망과 락관으로 회일을 한껏 느끼게 한다. 대흥단의 감자꽃바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영도로 조국의 북방에 펼쳐진 황홀한 풍경이다.

## ⑥ 한드레벨의 지평선

한드레벨의 지평선은 조국의 모든 벌을 종합적기 계화를 실현할수 있는 선군시대 사회주의 땅으로, 주요알곡산지로 전변시켜 인민들에게 풍족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대자연계조구상이 담겨져있는 경치이다. 한드레벨 물에 퍼져 농사지었다는 폐기밭들을 밀어내고 큰 규모로 정리된 한드레벨의 풍요한 지평선의 장쾌함은 어제와 오늘의 하늘따같은 차이를 가슴후련히 느끼게 한다.

본사기자 김준경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제보인 난치나이치로법(난치의 병을 치료하는 고려치로법)을 가리켜 세상사람들은 《신비스러운 고려의술》이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다.

우리 나라에 풍부한 고려약자원과 침, 뜸, 부항, 안마 등 독특한 치료법을 리용하여 사람들의 병을 예방치로하는 고려의학은 그 우월성으로 하여 오래전부터 세상사람들속에 널리 알려져왔다.

공화국에서는 오랜 역사를 가진 민족전통의학을 발전시켜 현대의학으로 고치기 어려운 고질병들을 낫게 하는 난치나이치로법을 연구하여 수십년전

인 1980년대에 벌써 세계의 학계의 이목을 끌었다.

공화국의 고려학연구자들은 1970년대말까지만 해도 어린이들의 기관지염이나 어혈이 진 부위를 치료해주는 정도에 머물고있던 난치나이치로법을 새롭게 발전시키는데 달라붙었다. 연구자들은 부항치료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집단을 꾸리고 선조들이 써온 부항로법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는것과 함께 치료의 기본수단인 부항단지도 최대한 효과를 낼수 있게 개조하였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식물에서 유효성분을 뽑아 주사하는 리상적인 주사약도 만들어졌다. 이에 토대하여 연구자들은 현대의학으로 고치기 어렵다고 하는 10여가지의 질병들

을 선택하여 집중적인 연구사업을 벌려 마침내 난치병 치료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현대의학으로 고치기 힘든 고질병치료에서 효과가 높을 뿐아니라 부작용과 우발증이 없고 로화방지에서조차 특효있는 주사약에 의한 난치나이치로법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세계의학계의 주목을 끌었다.

당시 의학이 발전하였다고 하는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조선의 고려의학의 비약적인 발전성과와 난치나이치로법에 대한 요청강의까지 진행하였다. 오스트리아, 서

독이었던 건강을 되찾은 오스트리아의 전 수상이었던 부르노 크라이스키는 너무 기쁘 난치병으로 두다리를 써지 못하던 자기가 이제는 스키까지 타게 되었다고, 이 기쁨을 온 세상에 대고 소리쳐 자랑하였다. 격동된 심정을 터놓았다.

그만이 아닌 브르투갈 전 대통령 고메스, 전 블러블가담국가 통신사련합(폴)

조정위원회 위원장 등 많은 사람들도 조선의 고려의학의 우월성과 눈부신 발전에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이렇듯 세인의 경탄을 자아내는 고려의학의 눈부신 성과속에는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명도의 손길이 뜨겁게 어려있다. 어버이사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서 우리 나라의 전통의학발전엔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조금이라도 유익한것이라면 시대의 요구에 맞게 계승발전시키도록 이끌어주시었다.

민족의 자랑, 난치나이치로법은 오늘날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애민의 뜻을 전하며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본사기자

# 세계가 인정 한 신비로운 고려의술

부도이퀵란드(당시), 사우디 아라비아, 스웨리에, 베네수엘라 등지에서 온 의사들과 저명한 학자들은 조선의 고려의학발전 특히 난치나이치로법의 연구완성에 대하여 흥분을 금치 못해하면서 한결같이 조선에 와서 고려의학을 배우고싶다는 희망을 표시하였다.

특히 난치나이치로로 자기 나라의 고위정책이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한 놀라운 사실을 목격한 오스트리아의 교수, 박사들은 이 치료법은 환자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과학적인 치료법이라고 하면서 공화국의 의료인들에게 오스트리아의 한 종합대학에서 강의도 해주고 실습도 시켜주며 공동연구사업 등을 하자고 제기

# 은 달은 실재한 인물

은 달은 전설속의 인물이 아니라 1 400여년전에 실제로 존재한 고구려의 명장이다.

그는 비천한 출신으로 평원왕(559-590년)때 평강공주와 결혼하였는데 외적이 침입하자 싸움에서 큰 공을 세웠다.

은 달은 영양왕(590-618년)때인 590년에 신라에 빼앗긴 개림현과 죽령서쪽 땅을 되찾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출전하여 은 달산성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은 달산성은 총정복도 단양에 위치하고있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이다. 단양군 영춘면에 있는 성산(427m)에 쌓은 이 산성은 둘레가 1.5km이고 성벽높이

가 평균 7m로 그 모습은 한가롭게 누워 새김질하는 소와 같다.

일제시기 지표조사를 위해 한달동안 은 달산성에 머물렀던 한 일본력사학자는 이 산성을 보고 동양에서 제일 멋진 산성이라고 나서서 기의 산성이 원형대로 잘 보존되어있는 골동품이라고 하였다. 성안에는 한개의 우물이고 바깥성벽에는 사다리 모양의 수구(배수시설)가 있다.

성벽은 돌을 한장한장 《우물 정》자 모양의 80° 각도로 쌓았으며 북쪽성벽에는 성벽아래에 가까이 접근한 적을 내리 공격할수 있도록 고안한 《치》가 튀어나와있어 이곳을 찾는 사람마다 구려사람들의 성 쌓는 기술에 감탄하고있다.

은 달산성과 관련하여 많은 지명유래와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적의 침입을 알리는 신호를 했다는 《표대봉》, 고구려군사들이 진을 쳤다는 《장군곡》과 《제진목》, 무기를 만들던 《방터》, 은 달이 쉬었다는 《쉬는 돌》, 성산아래에 있는 석

회암동굴인 《은 달굴》 등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것이다.

은 달산성과 관련한 전설로는 고구려땅을 회복하지 못하고 전사한 은 달의 시신이 이곳을 떠나려 하지 않아 평강공주가 《생사의 잎이 다 결정났다. 아아, 돌아갑시다.》라고 하며 판을 어루만져서야 판이 움직이었다는 것과 해를 10일이 걸리고 들어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은 달굴》 안에서 은 달과 평강공주가 지상에서 다하지 못한 사랑을 나누었다는것이 대표적이다.

지금도 영춘마을사람들은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을 보고 《은 달은 하루식전에 성을 다 쌓았는데 너는 여태까지 그것밖에 못했느냐.》고 추궁하며 행동이 굼뜬 사람을 보고는 《은 달산성에서는 쉬는 돌(휴식돌)까지 강을 건너 뛰었는데 너는 뛰지도 못하느냐. 은 달의 반이나 따라가라.》고 욕하며 따돌림받는 사람을 《너는 성 쌓고 남은 돌》이라고 놀려준다 고 한다.

본사기자

3월의 절기에는 경칩과 춘분 이 있다.

경칩은 우수와 춘분 사이에 있는 절기로서 양력으로는 3월 5일경, 음력으로는 2월 에 있게 된다. 경칩은 겨울 동안 땅속에서 잠을 자던 동물들이 깨어나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예로부터 이 계절에 사람들은 겨울추위를 이겨낸 보람을 한껏 느끼면서 그해의 알찬 결실을 위해 건강, 청결, 풍년 등을 기원하였다. 경칩날에 흙을 만지는 일을 하면 락이 없고 빈대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여 사람들은 흙물을 풀어 집의 벽에 바르거나 흙으로 담을 쌓기도 하였으며 재를 물에 타서 그곳에 담아 방의 네귀에 놓아두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들은 건강을 보존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겨울의 목은 것을 털어버리고 마울과 집, 몸가짐 등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였다.

농사에 항상 관심을 돌려온 농민들은 경칩날에 보리 싹이 돌아나는 것을 보고 그해의 흉풍을 예측하였는데 그것은 립춘날에 보리뿌리를 보고 그해 농사를 가늠해

# 3월의 절기

본것과 같은 것이었다. 춘분은 경칩과 청명 사이에 있는 절기로서 양력으로는 3월 20일경, 음력으로는 2월 에 있게 된다. 춘분은 낮과 밤의 시간이 같아지는 봄의 계절이라는 뜻이다. 이때면 태양이 지구의 적도를 곧바로 비치고 지구에서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데 겨울이 완전히 가서지고 봄기운이 완연해지게 된다.

예로부터 신조들은 춘분이면 꽃씨를 뿌리고 심을 종자를 심벌하는 등 농사에 힘을 집중하였다. 이 시기부터 밭갈이가 시작되는데 농민들은 농사시작을 잘해야 한해동안 걱정없이 지낼수 있다고 하면서 밭의 예비갈이를 실속있게 하였다. 한편 춘분을 전후한 시기에 바람이 많이 부는데 옛날에 사람들은 바람신이 셈이 나서 꽃을 피우지 못하게 하는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바람을 꽃샘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2월바람에 김치독 개진다》, 《꽃샘에 실늬는이 얼어죽는다》는 속담이 전해지고있다.

올해의 경칩은 3월 5일, 춘분은 3월 20일이다. 본사기자

차이에는 비타민을 비롯하여 100여가지의 유효성분들이 들어있어 여러모로 건강에 좋다.

① 차는 사람들의 정신을 맑게 하여 사색력과 탐구력, 기억력을 높여준다.

② 차는 피로를 풀어주고 물질대사를 촉진시키며 심장혈관계통의 기능을 높여준다.

③ 차는 이삭기를 막는다. 차를 일상적으로 마신 어린이들은 차를 마시지 않은 어린이들에 비하여 이삭기가 60%나 적었다고 한다.

④ 차에는 여러가지 미량 원소들이 들어있다.

⑤ 차는 세로의 돌연변이를 막아 암을 예방한다.

⑥ 차에는 비타민E가 많아 노화를 지연시킨다.

⑦ 차는 혈관내막의 지방 침착을 막아 동맥경화, 고혈압, 뇌혈전증 등이 생기게 한다.

⑧ 차는 중추신경계통의 기능을 높여준다.

⑨ 몸가짐과 미용에 효과적이다.

⑩ 로인들에게서 백내장이 도망에 걸릴 위험성이 5배나 높아진다. 반대로 찬 차를 마시면 머리아픔, 잠잠에가 생긴다.

차를 지내 많이 마시면 몸안에 수분이 많아져 심장, 콩팥이 부담을 받으며 너무 진한것을 마시면 머리아픔, 잠잠에가 생긴다. 위 및 12지창양장자들은 필수로 차를 마시지 않는것이 좋다.

⑪ 차는 알카리성음료이므로 산-알카리평형을 유지하는데 좋다.

⑫ 차를 마시면 더위를 막을수 있다. 더운 차를 마시면 9시간정도 지나서 피부온도가 1~2℃ 떨어지므로 시원한 감을 느낀다.

⑬ 차를 마시면 머리아픔, 잠잠에가 생긴다. 차를 지내 많이 마시면 몸안에 수분이 많아져 심장, 콩팥이 부담을 받으며 너무 진한것을 마시면 머리아픔, 잠잠에가 생긴다. 위 및 12지창양장자들은 필수로 차를 마시지 않는것이 좋다.

본사기자

# 건강에 좋은 차

생기는것을 막아준다. ⑪ 초월기관들의 피만드는 기능을 높여준다.

⑫ 차에는 여러가지 미량 원소들이 들어있다.

⑬ 차는 세로의 돌연변이를 막아 암을 예방한다.

⑭ 차에는 비타민E가 많아 노화를 지연시킨다.

⑮ 차는 알카리성음료이므로 산-알카리평형을 유지하는데 좋다.

⑯ 차를 마시면 더위를 막을수 있다. 더운 차를 마시면 9시간정도 지나서 피부온도가 1~2℃ 떨어지므로 시원한 감을 느낀다.

⑰ 차를 마시면 머리아픔, 잠잠에가 생긴다. 차를 지내 많이 마시면 몸안에 수분이 많아져 심장, 콩팥이 부담을 받으며 너무 진한것을 마시면 머리아픔, 잠잠에가 생긴다. 위 및 12지창양장자들은 필수로 차를 마시지 않는것이 좋다.

⑱ 차는 알카리성음료이므로 산-알카리평형을 유지하는데 좋다.

⑲ 차를 마시면 더위를 막을수 있다. 더운 차를 마시면 9시간정도 지나서 피부온도가 1~2℃ 떨어지므로 시원한 감을 느낀다.

⑳ 차를 마시면 머리아픔, 잠잠에가 생긴다. 차를 지내 많이 마시면 몸안에 수분이 많아져 심장, 콩팥이 부담을 받으며 너무 진한것을 마시면 머리아픔, 잠잠에가 생긴다. 위 및 12지창양장자들은 필수로 차를 마시지 않는것이 좋다.

본사기자

# 가장 오랜 모국

평양시 삼석구역 호남리 남경유적의 신석기시대에 해당되는 36호집자리에서는 솟이 된 벼와 조, 기장, 수수, 콩 등 오곡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우리 선조들이 일찍부터 벼와 콩을 재배하고 식생활에 리용하였다는 것을 말하여준다.

남경유적에서 나온 벼는 야생벼에서 벗어난 발육이 된 벼와 조, 기장, 수수, 콩 등 오곡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우리 선조들이 일찍부터 벼와 콩을 재배하고 식생활에 리용하였다는 것을 말하여준다.

남경유적에서 나온 벼는 야생벼에서 벗어난 발육이 된 벼와 조, 기장, 수수, 콩 등 오곡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우리 선조들이 일찍부터 벼와 콩을 재배하고 식생활에 리용하였다는 것을 말하여준다.

남경유적에서 나온 벼는 야생벼에서 벗어난 발육이 된 벼와 조, 기장, 수수, 콩 등 오곡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우리 선조들이 일찍부터 벼와 콩을 재배하고 식생활에 리용하였다는 것을 말하여준다.

남경유적에서 나온 벼는 야생벼에서 벗어난 발육이 된 벼와 조, 기장, 수수, 콩 등 오곡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우리 선조들이 일찍부터 벼와 콩을 재배하고 식생활에 리용하였다는 것을 말하여준다.

본사기자

무인 한사람이 말에서 떨어지면서 앞이발 석대가 부러져 옷을 때면 늘 웃음살을 오무려 부러진 이발을 감추고 있었다.

장난을 즐기는데 친구가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관상을 좀 볼줄 아는데 자네가 웃을 때

보면 꼭 장수할 상이더구나.》

《그걸 어떻게 아나?》

《책에 이르기를 (인중이 길면 장수한다)고 쓰여 있는데 자네가 웃을 때마다 인중에 끈질로 늘어나니 그걸 보면 장수할 상이라는 것을 제격 할수 있네.》

《관상》

《관상》

《관상》

《관상》

《관상》

《관상》

《관상》

《관상》

은속이가 사래를 만나 굴러 내려오는 바위에 부딪쳐 심한 부상을 입고 그 근방의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받게 되었다.

(부상? 입원?) 가슴이 철렁했다. 그렇게 만류하는걸 듣지 않고 그냥 몸을 혹사하며 다니더니 이제는 사고

은속이가 사래를 만나 굴러 내려오는 바위에 부딪쳐 심한 부상을 입고 그 근방의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받게 되었다.

(부상? 입원?) 가슴이 철렁했다. 그렇게 만류하는걸 듣지 않고 그냥 몸을 혹사하며 다니더니 이제는 사고

은속이가 사래를 만나 굴러 내려오는 바위에 부딪쳐 심한 부상을 입고 그 근방의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받게 되었다.

(부상? 입원?) 가슴이 철렁했다. 그렇게 만류하는걸 듣지 않고 그냥 몸을 혹사하며 다니더니 이제는 사고

은속이가 사래를 만나 굴러 내려오는 바위에 부딪쳐 심한 부상을 입고 그 근방의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받게 되었다.

(부상? 입원?) 가슴이 철렁했다. 그렇게 만류하는걸 듣지 않고 그냥 몸을 혹사하며 다니더니 이제는 사고

은속이가 사래를 만나 굴러 내려오는 바위에 부딪쳐 심한 부상을 입고 그 근방의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받게 되었다.

(부상? 입원?) 가슴이 철렁했다. 그렇게 만류하는걸 듣지 않고 그냥 몸을 혹사하며 다니더니 이제는 사고

은속이가 사래를 만나 굴러 내려오는 바위에 부딪쳐 심한 부상을 입고 그 근방의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받게 되었다.

(부상? 입원?) 가슴이 철렁했다. 그렇게 만류하는걸 듣지 않고 그냥 몸을 혹사하며 다니더니 이제는 사고

은속이가 사래를 만나 굴러 내려오는 바위에 부딪쳐 심한 부상을 입고 그 근방의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받게 되었다.

(부상? 입원?) 가슴이 철렁했다. 그렇게 만류하는걸 듣지 않고 그냥 몸을 혹사하며 다니더니 이제는 사고

은속이가 사래를 만나 굴러 내려오는 바위에 부딪쳐 심한 부상을 입고 그 근방의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받게 되었다.

(부상? 입원?) 가슴이 철렁했다. 그렇게 만류하는걸 듣지 않고 그냥 몸을 혹사하며 다니더니 이제는 사고

은속이가 사래를 만나 굴러 내려오는 바위에 부딪쳐 심한 부상을 입고 그 근방의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받게 되었다.

# 단편 소설

# 약

(12)

글 배경휘, 그림 김윤일

그후 나는 그 일에 대해 더 생각지 않았고 잊어버렸다.

한 후날 우연히 그의 일기장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그 모든 일들이 눈앞에 선히 떠오르며 뜻하지 않은 아픔을 주는 것이었다.

돌이켜보건대 그때 내가 한 말들은 그에 대한 뒤소리의 팔자를 옮긴 것이었고 그것을 긍정한 것이었다.

그것은 그 말에도 라당성이 있었고 은속을 만류하지 않니 그 립장에 설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재판에는 은속을 위해서 한 말이었는데 그것이 그에게는 뜻하지 않은 락적이었다.

남편에게서, 자기가 누구보다 믿고 지켰던 사람에게서 자기를 질시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불리해와 불신을 보았을 때 그의 심정이 과연 어떠했겠는가.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 《...영욱이 아버지에게서 그런 말을 들을줄은 몰랐었다. 영욱이 아버지의 생각이 우리 병원의 일부 사람들과 같은 립장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가슴이 비수에 찔리워 평 구멍이 뚫리는 감을 느꼈다.

그 구멍으로 심장의 피가 쏟아져나가고 텅 빈 공허가 깃든것 같았다. ... 이런 허무감, 이런 쓰라림을 맛보자고 천리길을 달려왔던가싶었다.

영욱이 아버지가, 다른 사람도 아닌 영욱이 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락격을 줄줄은... 그럴줄은 몰랐었다. 이런 일이 있을줄은...

아마... 영욱이 아버지는... 내가 예처로와서 그랬을 것이지만... 그것은 내가 바란 것이 아니었다. 나는 나에게 힘을 줄 것을 바

라서 그에게 피로움을 하소 했었다. ... 현대 믿고 기대려는 순간 그 담벽은 무너지고 발밑의 땅은 꺼져버렸다. ... 과연 영욱이 아버지까지 믿지 않는 일을 내가 성공해 낼수 있을까...

물론 통일이 되지 않는 한 내가 약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그 약은 필요없는 것으로 될수 있다. 하지만 나는 통일을 믿으며 영욱과 만날 날을 눈앞에 본다. 그 날을 보기에 아무리 힘들고 피로와도,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영욱을 계속하는 것이 다. 하지만 힘들다. 너무도 힘에 겹다. 오직 때워진 눈앞에 떠오르는 어린 영욱의 눈물에 젖은 얼굴이 나를 채찍질하며 일으켜세울 뿐이다.

이럴 때 영욱이 아버지에게 의지할수 있다면, 그가

나를 힘있게 떠밀어준다면 얼마나 좋으랴.

아, 영욱이 아버지... 어쩌면 당신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시나요? 어쩌면... 왜 제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해주시나요?

울음이 터져나와 더 쓰지 못하겠다. 눈물을 깨물어도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러내려 글줄이 보이지 않는다. ...》

그 피로움을 그는 혼자 남몰래 묵새겼었다. ... 실로 연약하고 부드러운 녀성인 그가 그 처절한 심리적싸움에서 어떻게 디디고 일어설수 있었는지?

결국 나는 본의는 아니지만 자기를 믿고 의지하려는 사람을 등뒤에서 찌른 적이 되었다. 그리고도 그를 사랑하고 위해주었다고 생각했으니 얼마나 어리석고 통탄할 일인가.

은속은 자기의 안락까운 심정을 나에게 내보이며 하지 않았다. 후시 환물을 느꼈는지도 모른다. 아니, 그는 나를 리해하려고 애쓰면



하지만 그때 나는 그 상처를 보지 못하였다. ... 그후 어느해 늦은 여름, 나는 약초를 채취하러 갔던

까지?... 억이 막혔다. 바위에 치였더니 어느 정도의 부상을 입었는지?... 불안으로 떨리는 가슴을 안고